

01 교회소식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며, 형형색색 아름다운 빛들로 가득했던 '2022 성탄 점등식'.

02 생명의 말씀

'위로부터 난 지혜' 시리즈

편벽과 거짓이 없는 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을 선하게 생각하고 진리로 분별해 무수한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며 마음에 선한 열매들을 맺는다.

03 기획특집

성탄절의 참된 의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으며 함께 기쁨을 나누시려는 선리.

04 간증

"하나님 말씀에 응답의 열쇠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 기도하며 그 뜻 가운데 행할 때 이들의 자폐증이 치료되고 자가 면역 질환과 다한증을 치료받은 국내외 성도들의 간증.

만민뉴스

제983호 2022년 12월 18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쁨과 평화!”

2022 성탄 점등식



지난 12월 9일(금) 오후 8시, 성탄절을 앞두고 유튜브로 생방송 되는 가운데 '2022 성탄 점등식'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소망하며 사랑의 주님을 닮고자 힘쓰는 주의 종과 일꾼들이 모인 가운데,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가 버튼을 누르자 형형색색 아름다운 빛이 수놓아지며 사택 정원을 환하게 밝혔다.

예능위원회 서승원 집사의 특송 후, 이수진 목사는 “주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이다. 구원의 약속이

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서는 부활과 천국 소망을 주시며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약속을 주셨다. 주님께 위로와 기쁨,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 변화를 다짐하고 더욱더 충성하며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길” 당부했다. 이어 성탄 케이크 컷팅 후 다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하며 마무리되었다.

한편, 12월 23일 금요일아예배는 '성탄전야예배'로 드리며, 2부에는 예능위원회 주관 '해피 크리스마스' 공연

이 방영된다. 특별히 올해는 아동주일학교, 남녀선교회, 학생·청년·가나안선교회 등 성도들이 직접 참여해 찬양, 연주, 위십 등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성탄절인 12월 25일 주일 대예배는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리며, 새해를 앞두고 12월 31일(토) 오후 10시부터는 '2022-2023 송구영신예배'가 진행된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편벽과 거짓이 없는 지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공홀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야고보서 3:17~18)

어느 날, 한 여인이 과자와 책 한 권을 사 들고 기차를 탔습니다. 험상궂은 청년의 옆자리였지요. 기차가 출발한 뒤 책을 읽던 그녀가 문득 청년을 보니 자기 과자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허락도 없이 남의 과자를 먹네? 인상도 험악하더니...’ 이런 생각을 하며 눈치를 주어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자기 것이라고 표현하기 위해 함께 과자를 먹어도 청년은 개의치 않았지요.

기차가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을 때, 청년은 마지막 남은 과자를 반으로 자르더니 한쪽을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고맙다.” 혹은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짐을 챙겨 자리를 떠나자 여인은 참으로 어이가 없었지요.

그런데 짐을 챙기다가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샀던 과자가 가방 안에 그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의 과자를 마음대로 먹은 것은 청년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편견이나 선입관을 가지면 사실이 아닌 일도 사실인 것처럼 확신할 때가 있습니다. 그녀는 청년에 대해 인상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기에 그가 남의 것을 먹는다고 단정했지요. 자기 가방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친절을 베푸는 상대를 나쁘게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에 대해서나, 환경에 대해서 편벽되지 않은 마음으로 보아야 진실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1. 편벽이 없으려면 공홀의 마음이 있어야

편벽이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을 공의롭고 정직하게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매사에 치우침이 없다면 누구를 대하든지 한결같습니다. 외모나 경제적 여건, 학벌 등 상대가 가진 조건에 따라 자신의 태도를 달리하지 않지요.

무엇을 하든지 편벽이 없으려면 ‘공홀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과 공홀함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운다고 해도 그 말씀을 바르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말씀은 “원수도 사랑하라” 하지만 막상 자신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취향과 성품, 내가 옳다고 하는 것에 맞추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볼록렌즈로 보면 뚱뚱해 보이고

오목렌즈로 보면 홀쭉해 보입니다. 만일 렌즈에 비치는 모습만 보고 말한다면 “내가 본 대로 말한다.” 하겠지만, 분명히 실제와는 다르니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상대는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과 공홀함이 없는 만큼 좌우로 치우칠 수 있으니 상대의 언행이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편견 속에서 상대를 바라보면 그 안에는 필연적으로 거짓이 섞여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진실하고 사랑과 공홀함이 있는 사람은 상대의 어떠한 모습을 본다고 해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공홀히 여기는 마음으로 감싸주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공홀은 생명을 살리는 선한 열매를 맺지만, 편벽됨은 판단과 정죄로 진실을 왜곡하며 생명을 잃게 만드는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스스로 율법에 정통하다고 자부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편벽된 시각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이에 맞지 않는 사람은 죄인으로 단정했지요. 그들은 예수님께서서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신 일을 두고도 ‘안식일을 범하는 악한 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 뜻은 무조건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식을 취하라’는 의미입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거나,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노동이 아니라 안식일에 마땅히 해야 할 선한 일이지요. 그런데도 편벽됨 속에서 “안식일을 어겼다.”고 판단하고,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거짓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2. 모든 것을 공의롭고 정직하게 보려면

많은 사람이 자신의 편벽됨으로 인해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거짓의 열매를 내고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야단칠 때도 그렇습니다.

형제간에 다툰을 때 부모가 그 이유를 형에게 물으니 “동생이 먼저 때렸어요.” 합니다. 이 말만 들으면 동생의 잘못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생에게 물으니 “형이 장난감을 뺏으려고 해서 그랬어요.” 하는 것입니다.

만일 부모가 동생의 말을 들어 보지도 않고 혼냈다면 동생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 지혜로운 부모라면 모든 것을 공의롭고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자신의 유익과 생각에 맞춰 진실을 왜곡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편벽된 시각이 자신도 모르게 거짓된 언행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가령,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을 범했다는 말을 들으면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며 믿지 않거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하며 어떻게든 허물을 덮어 주려고 합니다. 반면 평소애 싫어하던 사람이나 나쁜 선입관을 가졌던 사람의 일이라면 안 좋은 소문도 금방 믿어버리고 자기의 싫어하는 마음을 정당화시키기까지 하지요. 편벽된 마음이 있기에 사실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소문을 쉽게 받아들이고 상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만일 맞은편에서 오던 사람이 여러분의 눈을 피하면서 급히 지나간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쁘거나 딴 생각하느라 주변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고, 시력이 나빠 못 보았거나 자기 모습이 민망해서 피하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상대에 대한 사랑과 공홀함이 없다면 나쁜 쪽으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공홀과 사랑이 없는 만큼 편벽된 시각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동원하지요.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눈이 가려져 진실을 알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상담받을 때도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쪽으로 치우쳐 말합니다. ‘어느 편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를 들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해도 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답을 들어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지요. 또 전후 사정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기에 잘 분별하여 상담해야 합니다.

3.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아 범사에 편벽과 거짓이 없이 진실하려면

대인관계에서 오는 갈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상대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막상 상대에게 직접 물어보면 사정이 다른 것을 알 수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대표전화 02) 818-7000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니엘 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 및 관련 문의: 02-818-7236

이재록 목사의 대표 저서

URIM BOOKS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말만 들어서는 공의롭고 정직하게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범사에 편벽과 거짓이 없이 진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약한 사람에게 치우치는 것도 진리 안에서는 편벽된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3절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어 두호하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뿐만 아니라 약하고 힘없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지칭합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부유하고 권세 있는 사람 편을 들어서도 안 되지만, 가난하고 약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편벽되거나 친분이 두텁다고 정에 치우친다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우치지 않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되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2)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면 남의 말만 듣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선입관이나 편견을 가지면 자신이 직접 보고 듣는다고 해도 진실을 정확하게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물며 남의 말만 듣고 선불리 판단하거나 추측만으로 단정한다면 큰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공의롭게 자세히 살피지 않고 상대의 말만 믿는다면 그릇된 판단을 할 수 있지요.

실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큰 이익이 눈앞에 있다면 더 쉽게 상대의 말을 믿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이 수익성이 좋다는 말만 듣고 거액을 투자했는데 사기를 당하거나 큰 손해를 봤다면 누구를 원망하겠

습니까? 사업에 대한 정보를 들었다면 참고는 하되, 당사자가 다방면으로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거래할 상대가 신뢰할 만한지, 수익성이 확실히 있는지 꼼꼼히 따져 봐야 하지요. 비단 사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고 듣고 판단하는 모든 일에 신중히 처리해야 마음을 더 반듯하게 만들고 공정하게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3) 어떤 말을 하거나 무엇을 생각할 때 감정과 사심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친분이 있거나 자신에게 잘해 주는 사람에게는 너그러운 잣대를 적용합니다. 가령, 친하지 않은 사람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교만해서 질서를 어긴다. 불의하다.” 말하지만 가족이나 친한 사람이 원칙을 지키지 않을 때는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가 이웃집 아이에게 맞고 들어오면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감정부터 올라오는 부모의 모습을 표현한 말입니다. 내 아이가 때린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맞은 상처만 보고 화를 내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회의 중에 싫어하던 사람이 의견을 내면 그 의견 자체까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친한 사람이 의견을 내면 유연한 자세를 취하지요.

이처럼 편벽된 마음이 있으면 쉽게 눈이 가려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어떤 말을 하거나 무엇을 생각할 때 자신의 마음에 감정이나 사심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과 관계된 일이라면 더욱 공정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하지요.

특히 자신이 직분상 위사람이라면 더욱 근신하며 절제해야 합니다. 자신이 볼 때 치우치지 않게 분별했으니 ‘이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한 것도 남들이 보기에는 정과 욕심이라고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모든 것을 선하게 생각하고 진리로 분별하는 편벽과 거짓이 없는 지혜

주 안에서 긍휼함이 풍성히 임하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맺힙니다. 무엇보다 무수한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어 ‘값진 구원의 열매’를 얻게 되지요. 또한 긍휼을 베푼 사람은 자신의 마음 안에도 선한 열매들을 맺습니다.

악인에게도 끝까지 선으로 행하는 것, 인내와 사랑의 간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이 열매에 속하지요. 이러한 선한 열매들로 인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큰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께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긍휼로 무수한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십자가의 고통을 몸소 당하셨기에 그 긍휼의 열매로 무수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지요. 십자가를 거꾸로 지기까지 복음을 전한 사도 베드로, 우리의 아들이라 불렸지만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요한 등 성경에 나오는 인물 외에도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긍휼로 맺힌 선한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으로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마 9:13 ; 히 13:16). 이러한 마음을 알아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고 구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마음의 소원까지도 응답받으시(시 37:4) 지혜를 발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의 참된 의미

성탄절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축하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널리 전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 위에 높이 들려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 우리 인류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온 인류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인류에게 구원을 주신 날이 되지요. 모든 인류가 가장 기뻐해야 할 날입니다.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사랑 즉 지옥에서 건져졌으며,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천국까지도

얻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지요.

성탄절이라 하여 그냥 ‘기쁘고 행복하다.’ 할 것이 아니라 정녕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를 느껴야 하겠습니다.

2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최고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요일 4:9~10). 예수님께서서는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죄인들을 대신해 나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주셔야만 했지요(레 17:11 ; 갈 3:13).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바로 죄인들을 대신해 죄의

값을 치르는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당하도록 처참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롬 5:7~8).

이처럼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맞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 깊이 느낌으로 중심에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3 참 자녀를 천국에 들어 영원히 사랑과 기쁨을 나누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오직 행복과 기쁨, 평안과 사랑만 있는 아름다운 천국에 모든 사람이 들어오기를 지금도 간절히 원하고 계시지요. 특별히 영원히 변함없는 참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아름답고 선한 주님의 마음을 닮은 최고의 자녀를 얻고자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에 참 자녀들을 들어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 두시고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으시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19년, 제 아들 서린 조이는 세 살이 되었는데도 “엄마! 아빠!” 외에는 다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저와 남편은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자폐증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결과를 듣게 된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슬픔 속에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픈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유튜브 검색 중 GCNTV HINDI와 텔리 만민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릴 뿐이었지요.

2020년, 서린 조이가 네 살이 되어 학교에 입학했는데 아이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항상 혼자 있으려 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아이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않으며 학습에 집중하지 않아서 다른 아이들이 수업 받는 데 방해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아이를 자폐아를 위한 특수학교로 보내야 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특수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들을 특수학교에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까지 이르자 저와 남편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들이 치료받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배를 마음 다해 드렸습니다.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에도 큰 은혜를 받으니 제 신앙생활은 변화되어 갔습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와 십일조를 하며 하나님 뜻을 더 알고 싶어서 당회장님의 설교 ‘십자가의 도’, ‘믿음의 분량’, ‘선’ 등 많은 말씀을 찾아서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응답의 열쇠를 찾게 되었고 보화를 얻은 듯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바로 “부모의 죄로 인해 자녀가 자폐증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아들의 자폐증이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스와프나 집사 (37세, 인도 비하루 주)

저는 부모의 어떤 죄로 인해 아들에게 이 같은 증상이 나타났는지 말씀을 들으며 깨우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마침 텔리 만민교회 담임 김상휘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썸 미팅’에 참여한 날, 설교 말씀을 들으며 ‘간음’이 문제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통회하며 자복하게 되었지요.

2021년에는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은사 집회에 GCNTV HINDI를 통해 기도 받은 뒤 통증으로 울리지도, 뒤로 젖히지도 못했던 팔을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제가 직접 체험하니 더욱더 아들의 자폐증 치료가 간절해졌습니다.

저는 ‘2022 만민하게수련회’ 때 반드시 치료받고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우침이 와서 저는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남편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2022년 8월 1일, 만민하게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GCNTV HINDI를 통해 저와 남편은 첫날 교육 후 진행된 은사 집회에서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 뒤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지요. 제가 “서린 조이!” 하고 부르면 저를 쳐다보고, 묻는 말에 답하기도 하며, 문장을 만들어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은 제 아들을 보며 자폐증이 있는 아이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기뻐합니다. 시어머님도 주님을 영접하여 저희와 함께 GCNTV HINDI로 만민중앙교회 예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당회장님의 귀한 설교를 통해 치료와 응답의 길을 밝히 보이시며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자가 면역 질환과 다한증을 치료받았어요”

양남지 자매 (31세, 대전만민교회)



2016년 어느 날부터인가 얼굴에 하나둘 물집이 생기더니 물집이 터지면 자국이 남고 각질이 일어나 항상 피부가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유제품이나 육류를 섭취할 때는 증상이 더 심해져 음식도 가려먹어야 할 정도였지요.

병원에 가서 검진받아보니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이라고 하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치료를 위해 전신의 면역력을 억제해야 하니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음으로 치료받고 싶었습니다.

치료받은 후 간증할 때 필요할 것 같아 좋지 않은 상태의 얼굴도 미리 휴대폰으로 촬영했지요(아래 사진).

그런데 ‘언젠가 치료받아야지.’ 하면서도 막상 기회가 오면 믿음으로 정성껏 준비하지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받지도 못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하는데...’ 하면서도 생각만 할 뿐,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지요.

저는 2022년 5월 은사 집회를 앞두고 이번에는 꼭 치료받아야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를 알려 주세요.” 하며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깨우치는 대로 즉시 회개하였습니다.



드디어 5월 27일 은사 집회로 열린 금요철야예배에 저는 성전에 가서 GCN방송을 통해 참석하였습니다. 설교 후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 환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피부병아, 물러가라! 아기 피부 만들어 주시고...”라는 말에 제 귀가 번쩍 뜨이면서 간절히 “아멘! 아멘!” 고백하며 기도를 받았지요.

그 뒤 제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유제품이나 육류 등 어떤 음식을 먹어도 얼굴에 전혀 물집이 생기지 않고 아기 피부와 같이 깨끗해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손에 땀이 차는 다한증까지 치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여방동1099-2 J빌딩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010-6425-8705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령천서로 57 광명빌딩 7층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로 135-1 2층 ☎061)452-7443, 010-6320-5984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6320-5984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4547-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환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서산만민성결교회 충남 서산시 예천동 650-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만리공원길 7-1 3층(교동)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성결교회 전남 순천시 장천동 팔마로11-5 3층 ☎061)745-1117, 010-6603-7266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청운로 129 황야빌딩 3층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망마로 102 ☎061)652-8311, 010-2325-1228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안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4849-1479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6772-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거룡2길 53-1 2층 ☎043)845-0617, 010-2447-9217
- 강릉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경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정로 162 ☎010-5611-725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7736-933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1-054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9636-797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5611-725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아설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2201-054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5611-7254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